

산자부,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기술개발에 443억원 지원 !

문의 | 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 02-2110-5132

- ◎ 산업자원부(장관 김영주)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제고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형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“2007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” 및 “2007년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”을 확정하였음

- ◎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(이하 ‘청정사업’)은 “제품설계부터 폐기까지” 전과정에 걸쳐 환경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·감축하고, 친환경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,
 -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(이하 ‘에너지·자원순환사업’)은 생산공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통해 원부자재 투입의 원천적 절감을 통한 자원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임
 - 특히 금년에는 기존 청정사업에서 에너지·자원순환과 관련된 과제를 분리하여, 에너지및자원순환특별회계에 “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”을 신설하였으며, 향후 동 사업을 통해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형성에 주력할 계획임

중·소형 사업자들이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져 신·재생에너지 보급용자사업에 신용대출제도 최초 도입

문의 |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02-2110-5403

◎ 산업자원부(장관 김영주)는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이후 발생 할 수익을 담보로 용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용담보대출제도를 최초로 도입함

- 전력생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익(발전차액)이 용자심사에서 담보로 인정되므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·소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초기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* 발전차액이란 산자부가 고시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기준가격과 실제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의 차액으로 정부가 가격보조형식으로 (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5년간)지원

- 또한 정부자금에 의존하는 현 신·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장차 Project financing 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함으로써, 건설한 투자기반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

◎ 올해 신·재생에너지 보급용자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,213억원이며 2007년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2월초 자금지원지침을 공고할 계획임

- 「신·재생에너지 보급용자사업」은 태양광, 풍력, 소수력, 바이오, 폐기물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저리 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임

* 연리 3~4%대의 낮은 이자율(국고채 3년 만기 분기별 연동금리 - 1.25%)로 8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장기 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(단 신용담보대출 이자율은 최고 6%)



공학교육을 산업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전국 50개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설치

문의 |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팀 02-2110-5205

- 공과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지향적인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설계·적용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설치

* '07년 50개 대학, 센터당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 지원 (권역별 거점센터는 5년간 20억원)

- 기존 공학관련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원하고, 공학교육 혁신을 본격 추진하는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우대받는 시스템 구축

■ 전국 주요 50개 공과대학에 공대 혁신을 주도할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설치된다.

-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작년 11월 산·학·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「공과대학 혁신 비전과 전략」에서 공대 혁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제시된 것으로

- 각 공과대학은 공학교육혁신센터를 통해 대학의 핵심역량, 지역산업여건 등 제반현황을 분석하고 학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타 대학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는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

- 지역산업과 연계된 공학교육프로그램 운영(특성화학과 운영, 기업참여형 Capstone Design 등), 산업계 지향적인 공학교육시스템 개편(커리큘럼 개편, 교수 평가 및 보상제도 차별화 등) 등 공학교육 혁신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.

2.1일자로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113만호 해당 지역난방 사용요금 1.19% 인하

문의 |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 02-2110-5422

- 한국지역난방공사, GS파워 등 수도권지역의 6개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난방 사용요금이 2월 1일부터 1.19% 인하 될 예정입니다.
- 산업자원부는 금번 요금조정은 지역난방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매년 2월과 8월 정기 조정되는 것으로써, '06년 하반기에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0.3% 상승하고, 원달러환율은 1.77%하락함에 따라 발생한 연료비 인하분을 반영하여 신고한 요금을 수리한 것이라고 밝혔음.
- 금번 열요금 인하로 인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85평방미터 아파트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약 9천원 정도 요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.
* 연간난방비 : 기존 849천원 → 조정 840천원
- 지역난방 요금의 연료비연동제는 매년 2회(2월 1일, 8월 1일) 정기 조정되며, 필요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
- 금번 요금인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, 안산도시개발, GS파워, 인천공항에너지, 인천종합에너지, 주택공사 등 6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서울시, 안양시, 인천시, 성남시 등 113만호에 적용된다.

